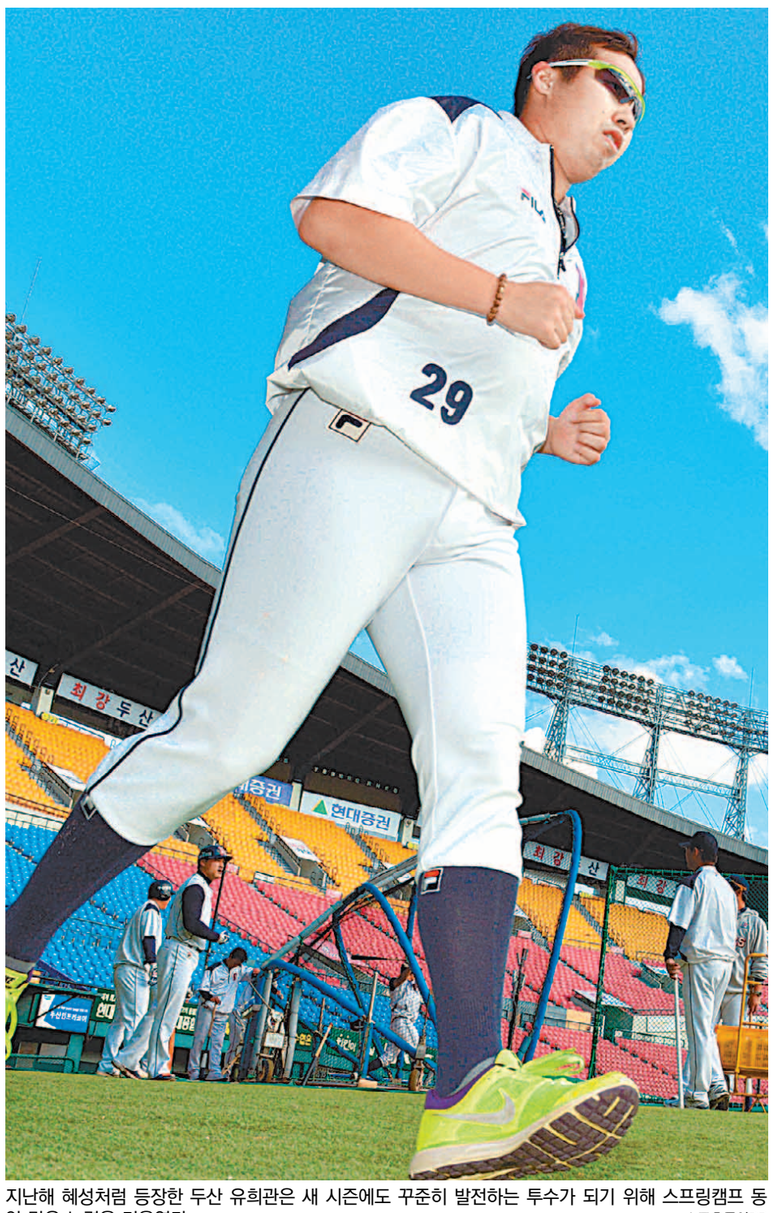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한 두산 유희관은 새 시즌에도 꾸준히 발전하는 투수가 되기 위해 스프링캠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포츠동아DB

# "포크볼 장착 완료 2년차 징크스 No"

## 전훈 마친 두산의 희망 유희관

### "작년엔 생존…올해 꾸준한 선수 간절함 포크볼 맹훈련 좌타자 상대 신무기 될것"

두산 좌완투수 유희관(28)은 미국 애리조나~일본 미야자키로 이어졌던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5일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다.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해 10승(7패)을 거두며 두산 선발진의 한축을 맡았던 그는 이번 캠프 동안 또 한 번의 발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렸다.

**● "반짝하고 사라지고 싶지 않다"**

불과 1년 만에 유희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캠프에선 개막전 엔트리 진입을 목표로 삼는 입장이었다면, 올해는 당당히 억대연봉(1억원)을 받는 팀의 주축 투수로 성장해 캠프에 입성했다. 지난해 캠프에선 컨디션 조절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생존을 위해 오로지 훈련에만 매달렸다. 많은 공을 던지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귀한 몸'이 된 올해는 페넌트레이스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훈련에 매진했다.

위치는 달라졌지만 '절실함'은 그대로였다. 유희관은 "내가 팀에서 대우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기대치도 커졌다는 의미다. 1년 반짝 잘 하고 사라지는 선수가 되고 싶지는 않다. 남들이 말하는 '2년차 징크스'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해는 개막 엔트리에 들기 위한 절실함이었다면, 올해는 꾸준히 잘 하는 선수가 되기 위한 절실함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밝혔다.

**● 포크볼 장착, 발전을 위한 변화**

올해 캠프에서 성과는 포크볼 장착이다. 유희관은 "지난해 좌타자를 상대로 부진했다. 떨어지는 공이 하나 있으면 좌타자를 상대하기가 좀더 수월해질 것 같아 지난해 시즌 종료 직후부터 포크볼을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희관의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221이었던 반면,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332로 무척 높았다. 유희관은 포크볼을 실전에서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캠프 기간 중 많은 공을 들였고, 연습경기와 청백전에서도 꾸준히 포크볼을 던졌다.

유희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포크볼을 익혔다. 연습경기에서도 효과가 괜찮았다. 내 커브나 슬라이더가 결정구가 될 만큼의 위력은 아니다. 포크볼이 추가되면서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 확실하게 내 구종으로 만들면 좋은 무기가 될 것 같다"며 포크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LA 다저스 류현진이 6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진지한 표정으로 투구하고 있다. 이날 4이닝 4안타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굿이어(미 애리조나주) | AP뉴시스

# 류현진 4이닝 2실점 쑥스러운 승리

## 두번째 시범경기 신시내티전 볼넷도 2개

4이닝 2실점. 승리투수가 되긴 했지만 쑥스러운 성적표다.

'한국산 괴물' 류현진(27·LA 다저스)이 2번째 시범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4안타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방어율은 3.00(6이닝 2자책점). 4-2로 앞선 5회초 호세 도밍게스에게 마운드를 넘긴 류현진은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시범경기에선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으로 최소 5이닝 투구를 적용치 않아 승리투수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5회말 알렉산더 게레로의 만루포 등을 비롯한 장단 10안타를 몰아치며 10-3으로 이겼다.

시범경기 첫 등판이었던 1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2이닝 2안타 무실점의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던 류현진으로선 적잖게 아쉬움이 남는 투구였다. 처음으로 볼넷도 2개를 허용했다. 1회 잇달아 안타를 내줘 무사 1·2루에 몰린 류현진은 3번 조이 보토를 1루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을 노렸지만 유격수 미겔 로하스의 송구실책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잡는 데 만족했다. 그 사이 2루에 있던 해밀턴이 득점해 첫 실점까지 떠안았다. 2회에도 2사 1·2루 위기서 해밀턴에게 우중간적시타를 맞아 추가점을 내줬다. 그러나 3회에는 보토~라이언 루드윅~제이 브루스로 이어지는 신시내티의 클린업트리오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력을 과시했다.

류현진은 이달 22~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애리조나와의 개막 2연전에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 "전패 당해라" 킨슬러의 저주 vs "팔길 잘했어" 텍사스의 콧방귀

## ML 인사이드

### 킨슬러, 포지션 변경 거부하다 맞트레이드 트레이드 활발한 ML서 친정팀 비난 논란

최근 'Sleazeball'이라는 단어가 미국 스포츠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직역하면 '보기 싫은 놈', '밉살맞은 놈'이라는 뜻으로 프린스 필더와 맞트레이드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새로 둥지를 튼 2루수 이안 킨슬러(32)가 친정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존 대니얼스 단장에게 퍼부은 독설이다.

트레이드가 활발한 메이저리그에서 전 소속팀 단장을 향해 이처럼 비난을 퍼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기 싫은 놈'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부족해 "레인저스가 올 시즌 162경기에서 모두 패했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퍼부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킨슬러가 이처럼 분노한 까닭은 무엇일까. 2006년 레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킨슬러는 8년 동안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루키시즌부터 주전 2루수를 꿰찬 그는 통산 타율 0.277, 156홈런, 539타점, 172도루를 기록했고 올스타로도 3번이나 선정됐다.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30홈런-30도루를 2회(2009·2011년)나 달성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디트로이트로 이적한 이안 킨슬러는 자신을 내친 친정팀 텍사스의 존 대니얼스 단장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니얼스 단장 역시 "(킨슬러를) 트레이드하길 잘 했다"고 맞받아쳤다. 레이크랜드(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그러나 지난해 11월 단행된 트레이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 처리로 킨슬러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초 간판스타 마이클 영을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시킨 뒤 레인저스 구단은 킨슬러에게 포지션을 1루수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유망주 주릭슨 프로파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레인저스 구단은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영에게 포지션 변경을 요구한 전례가 있었다. 2루수였던 영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뉴욕 양키스로 떠난 이후 유격수로 전업한 것을 시작으로 3루수를 거쳐 1루수로 거듭 변신했다. 영은 군말 없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킨슬러는 구단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포지션 변경을 거부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대니얼스 단장이 2013시즌을 마치자마자 필더와의 트레이드를 추진한 것이다. 심지어 트레이드가 성사됐다는 소식도 구단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전해들은 킨슬러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헌신짝처럼 취급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킨슬러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졸지에 '밉상' 이미지를 얻은 대니얼스 단장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 "역시 트레이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레인저스가 올 시즌 전패를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발언에 우리 팀 선수들이 더욱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레인저스 론 워싱턴 감독도 "킨슬러는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우승을 노리는 레인저스가 전패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근 4시즌 연속 90승 이상을 거둔 레인저스는 2010년과 2011년 아메리칸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올 시즌에도 필더와 추신수를 영입해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강력한 후보다.

킨슬러는 5월 23일부터 홈에서 레인저스와 4연전을 치른다. 첫 텍사스 원정은 6월 25일이다. 친정팀에 저주를 퍼부은 킨슬러에게 레인저스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 日 심판위원장 "오승환 투구폼 전혀 문제없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이노 오사무 일본야구기구(NPB) 심판기술위원장 및 규칙위원이 한신 오승환의 투구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노 심판기술위원장은 5일 오승환의 소프트뱅크전 등판을 지켜봤다. 와인드업 과정에서 왼발을 천천히 내딛으면서 한 박자 느리게 공을 던지는 오승환의 독특한 투구폼을 놓고 일본 내에선 이중동작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 추신수, 콜로라도전서 3타수 1안타 1득점

텍사스 추신수가 6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시범경기에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2연속경기안타.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투수 모랄레스의 4구째를 중전안타로 연결한 뒤 프린스 필더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시범경기 5게임에서 12타수 2안타(타율 0.167)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2-8로 졌다.

### 김광현, 롯데와 연습경기서 3이닝 무안타 2K 무실점

SK 김광현이 6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10타자를 상대하며 무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나왔다. SK가 8-6으로 승리했다.

# 제퍼슨 막으면 문태종이 날고…유재학 감독, 어떻게 잡을까?

## 바스켓볼 브레이크 | 7일 빅매치 모비스-LG전 관전포인트

모비스와 LG가 7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만난다. 사실상 이 경기를 통해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1·2위가 갈린다. 6일까지 1위 모비스(39승13패)는 10연승, 2위 LG(38승14패)는 11연승 중이다. 모비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했지만 정규리그에선 SK에 밀려 2위였다. 2년 연속 챔피언 등극을 통합우승으로 장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LG는 창단 첫 정규리그 1위가 걸려있는 만큼 더 절박하다. 한번도 못 밟아본 정상의 기회가 왔기에 더 필사적이다.

**● 제퍼슨을 막아라!**

승부의 최대변수는 LG 용병 데이본 제퍼슨을 모비스가 막을 수 있느냐다. 매치업에서 모비스는 LG에 비해 확실히 우세를 점하는 포지션이 없다. 가장 문제가 제퍼슨을 막아낼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비스 용병 로드 벤슨과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골밑싸움과 높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퍼슨의 발과 미들슛을 막기가 쉽지 않다. 제퍼슨이 바깥에서 슛을 적중시키면 골밑을 비우고 따라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또 제퍼슨을 막으러 도움수비를 들어가면, LG의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긴다. 특히 LG의 해결사 문태종은 위협적이다. LG는 가드 김시래가 모비스 양동근에, 포워드 김종규가 모비스 함지훈에 밀리지 않는다. 문태종은 친동생인 모비스 문태영보다 개인기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모비스는 매치업의 열세를 뛰어넘는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제퍼슨에게 점수를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나머지 LG 선수들의 득점을 최소화하는 비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 LG의 페인트존 공략-모비스의 미들레인지 득점 대결**

LG는 모비스와의 5차례 맞대결 때 페인트존 득점에서 전부 앞섰다. LG가 속공에 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확률 높은 페인트존 득점에서 우위를 보였다. 모비스는 페인트존 득점의 열세를 미들레인지 득점으로 만회했다. 외곽과 중거리슛 등 바깥에서 강세를 점한 것이다. 또 하나 모비스가 지닌 의외의 무기는 속공이다. 모비스가 LG에 비해 연령대가 높지만 속도전에서 크게 밀리진 않았다는 얘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7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LG-모비스전은 정규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늠하는 한판승부다. 이날 경기의 최대 변수는 LG 외국인선수 데이본 제퍼슨(왼쪽)이다. 탁월한 개인기량을 자랑하는 제퍼슨은 모비스에게도 '경계대상 1호'다. 사진제공 | KBL

### 임달식감독 제재 관련 심판설명회 개최 WKBL "욕설, 비디오 판독 확인 불가능"

신한은행 임달식(50) 감독은 6일 오전 서울 등촌동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사옥에서 열린 심판설명회에 참석했다. 신한은행과 임 감독은 2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 패한 뒤 심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설명회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WKBL 최성오 심판위원장, 2일 경기 심판, 임 감독 등이 참석했다.

WKBL 규정상 심판설명회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설명회 결과와 그에 따른 심판의 징계 여부는 검토를 거쳐 7일 해당 심판과 구단에 개별 통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단은 재정위원회 회부 결과와 심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켜볼 생각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WKBL은 2일 경기 도중 임 감독의 욕설 여부에 대해선 "임 감독과 심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욕설은 비디오 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